

## ‘연안(延安)’으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

김 성 화\*\*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지식인의 사상 개조와 자기비판 |
| 2. 항일의 성지, 도래할 미래상 - 해방<br>직후 ‘연안’ 이야기와 『노마만리』 | - 연안 ‘정풍운동’과 『노마만리』 |
|  | 4. 나가며              |

### 국문초록

본고는 김사량의 『노마만리』에 대한 기존의 평가-저항문학, 항일문학-틀에서 벗어나 해방 직후 ‘연안’ 담론 속에서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수용되는 과정 및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연안’의 흔적들을 추적해봄으로써 김사량과 『노마만리』에 대한 논의를 보충, 확장하고자 했다.

중국 공산혁명의 발원지인 연안(延安)은 중일전쟁 발발 후 미국기자 에드가 스노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신속하게 ‘항일의 성지’로 부각되었다. 당시 중국 내 지식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항일 독립 운동을 하던 많은 조선인 애국지사들도 항일의 꿈을 안고 연안에 몰려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문화회 하반기 전국학술발표대회(2019. 12. 21)에서 발표한 ‘연안(延安)’을 통해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중국 南通大學校 외국어대학 전임강사).

들었으며 차츰 자신의 군대와 정치조직을 갖추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의 전선에서 싸웠다. 일본 패전 후 이들이 귀국하면서 ‘연안’이라는 장소는 해방 직후의 조선에서도 ‘항일’의 대명사로 부각되었다. 김사량과 그의 『노마만리』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용군의 항일 이야기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김사량의 『노마만리』에서 ‘연안’은 ‘항일의 성지’라는 의미에서 한 발 나아가 항전 승리 후 찾아오게 될 ‘미래’와 관련 있는 장소로서 건국을 눈앞에 둔 탈식민 주체들이 참조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김사량에게 있어 도래해야 할 미래상으로서의 ‘연안’은 유토피아적 공간으로서의 고향, 되찾아야 할 과거의 고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관련하여 김사량이 1945년에 중국 태항산으로 탈출 당시 연안에서 시작된 ‘정풍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풍운동으로 인해 연안을 비롯한 여러 항일근거지에서는 지식인의 사상 개조를 위한 자기비판이 일상화되며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기비판의 서사가 근거지 문예 창작의 중요한 한 갈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노마만리』 역시 정풍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소부르주아라는 출신성분에 대한 작가 자신의 끊임없는 부정과 비판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자기 비판적 시각에서 다시 본 『노마만리』는 해방기의 단순한 ‘연안’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연안’ 이야기를 통한 김사량 자신의 이야기기도 했다.

주제어 : 김사량, 『노마만리』, 연안, 항일, 미래, 고향, 정풍운동, 사상 개조, 자기비판

##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작가 김사량(金史良, 본명 김시창, 1914-1950?)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월북작가’ 해금 조치 이후였다. 『빛 속으로』가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으로 선정(1940년)되면서 일본에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 김사량은 한국전쟁 중 종군기자로 활약하다 행방불명되기까지 약 10년간 일본-식민지 조선-중국-한반도의 남과 북을 횡단하면서, 그 누구보다 왕성한 창작열을 보였다. 안우식의 말처럼 “1939년 가을부터 시작된 김사량의 작품 활동은 마치 그때까지 진동하고 있던 화산이 때를 맞아 불을 뿜는 것처럼 보였다.”<sup>1)</sup>

1940년대를 관통하는 그의 창작 흐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두 개의 변곡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바로 『빛 속으로』와 『노마만리』 두 작품이 놓인다. 가령 일본어 소설 『빛 속으로』가 김사량의 작가로서의 ‘천재적 재능’을 인정받게 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노마만리』는 식민지 작가로서의 ‘이중적 글쓰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작품이자 해방 직후 조선 문단으로의 회귀 및 새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마만리』는 1945년 해방 직전 중국의 태항산에 위치한 조선의 용군 본거지에서 창작한 육필원고를 기반으로 1945년부터 1947년에 이르기까지 개작이 반복되었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노마만리』는 그야말로 ‘번역’ 중에 있는 텍스트로, 김사량의 해방 전과 후의 창작 상의 ‘단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수용 및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식민지 시기 김사량이 일본어로 창작한 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친일, 민족, 언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반면, 『노마만리』는 공통으로 ‘저항문학’ 혹은 ‘항일문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

1) 안우식 저, 심원섭 역, 『김사량 평전』, 문학과 지성사, 2000, 126쪽.

우선, 『조선신보』<sup>2)</sup>의 최근 기사<sup>3)</sup>를 통해 2013년 전승 60들을 맞이하



사진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증서와 훈장을 수여 받는 모습  
사진②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서  
아버지 김사량의 묘비 앞에 서 있는  
아들 김광립  
사진③ 왼쪽에서 김사량의 만딸 김애경,  
둘째딸 김애리, 아들 김광립<sup>4)</sup>

- 2)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로 주로 조선어로 발간되고 있는데 본사는 일본 도쿄에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 지국을 두고 있다. ‘평양발’로 시작되는 기사는 평양지국 내 특파원의 현지 취재 및 인물취재, 탐방기 등이다. 북한에 의하면 『조선신보』는 “해외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보도활동을 벌려 사회주의 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튼튼히 지키는 것에 이바지하는 신문이다. 엄현숙, 『결핍에 대한 북한 주민의 마음의 변화: 『조선신보』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0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8.11, 269-270쪽.
- 3) 평양발 김지영 기자, 『전승 60돐의 해에 인민이 추억한 중군작가/김사량 영웅 칭호 수여에 갖든 비화』, 『조선신보』, 2013년 12월 6일. 위의 사진자료들은 『조선신보』 기자 문광선 촬영.
- 4)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보면 김사량의 세 자녀의 이름은 ‘낭림’, ‘나비’, ‘야금’으로, 『한 세기를 그리다-101살 현역 김병기 화백의 증언』(『17. 평양문단의 김사량과 오영진』, 『한겨레』, 2017.7.23.)에도 “김사량의 큰아들의 이름은 ‘낭림(狼林)’으로 ‘남쪽에 태백산맥, 북쪽에 낭림산맥’과 연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위의 기사에서 밝힌 김사량의 세 자녀의 이름과 배치되며, 또 이 기사에 제시된 이들의 연령(2013년 기사 당시 이들의 연령은 각각 “만딸 김애경 씨(70살), 둘째

기 위한 북한의 ‘축제’에서 김사량과 『노마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소환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김사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수여 했으며, 7월 말에 준공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 ‘공화국 영웅 김사량 동지’라고 새긴 묘비(묘비에는 군복차림의 김사량이 새겨졌다)를 세웠다.

『노마만리』에 대해서는 이를 김사량 ‘항일문학’의 시발점이자 ‘김일성장군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칭송<sup>5)</sup>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80년대에 김사량이 ‘혁명작가’로 조명되었을 때의 평가를 이어가는 것이기도 했다. 80년대 말 장형준(북한의 문학 평론가)은 김사량이 해방 전에 창작한 『노마만리』에서 이미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고 김일성의 부대를 ‘태양 부대’라고 불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김일성 장군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 조선인민혁명군의 혁혁한 승리와 그 세계사적 의의를 격동적으로 노래한 작품”<sup>6)</sup>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에는 1940년대 문학작품 중 김사량의 『물오리섬』(『국민문학』, 1942)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어용 잡지에 실린 그의 일본어 소

---

딸 김에리 씨(67살), 아들 김광림 씨(63살)”로 표기되어있었다.) 또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보면, 1945년 김사량 탈출 당시 ‘다섯 살 먹은 낭림이’, ‘제 어머니 가슴에 묻혀 호곤히 잠이 든 야금’, ‘어린 나비는 영문도 모르고 쭈쭈쭈 하며 기필로 부작을 그리듯 하였다’라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나비’와 ‘야금’은 연령상 김애경과 김에리로 추측해볼 수는 있으나 큰 아들 ‘낭림’은 살아있다면 분명 73세 정도로, 이 기사에 나오는 아들 김광림 씨(63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큰아들 ‘낭림’은 이미 사망했으며, 김광림은 김사량 종군 전후에 낳은 막내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낭림’, ‘나비’, ‘야금’은 북한에서 호적에 등록된 성명이 아니라 가족끼리 부르는 애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조선신보』, 위의 기사.

6) 장형준, 『작가 김사량과 그의 문학』, 김사량 저·김재남 편, 『종군기』, 살림터, 1992.4, 324-325쪽. 이 논문은 원래 1987년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발간된 『김사량 작품집』에 실린 것이다.

설마저도 “작가의 고충과 긍정적 시도에 대해 응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라고 했다는 점에서 김사량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노마만리』에 대해서는 ‘반일’에서 ‘항일’로 나아간 전환점으로,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할 것을 결심하고 유격대를 찾아 만주 지방을 헤맸으나 중시 부대를 찾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항일유격대를 ‘태양 부대’라고 칭송한 장편기행문”<sup>7)</sup>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하여 사실상 김사량의 『노마만리』를 포함한 해방 전 작품들은 북한에서 ‘반일’, ‘항일’, ‘민족’이라는 공적 서사 속에 매끄럽게 기입되었다.

한편,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한국에 소개된 것<sup>8)</sup>은 80년대 말 ‘민족문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였다. 『노마만리』는 ‘암흑기를 뚫은 민족해방의 문학’으로, ‘일제 말기가 친일과 전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위 암흑기가 아니었음’<sup>9)</sup>을 증명해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뒤 『노마만리』는 드디어 세 판본<sup>10)</sup>이 함께 출간되면서 작품의 전모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7) 류희정, 『현대조선문학선집53-1940년대 문학 작품집(해방전편)』, 문학예술출판사, 2011.4, 19-20쪽. 저자는 『노마만리』에 대한 평가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밝힌다.

8) 김사량과 그의 작품에 대한 발굴 및 출판 사업은 70년대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문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80년대 후반에야 한국에 번역, 소개되었다. 김사량 연구는 기초자료 측면에서 안우식의 『金史良—その抵抗の一生』(岩波書店, 1972)에 많이 의지하는바 이 책은 ‘저항의 생애’라는 말로 집약되는 ‘민족주의자’로서의 김사량을 그리고 있다. 작품집보다도 빨리 김사량을 한국 사회에 알린 안우식의 평전은 작품집의 번역을 재촉하고 친일문학론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다. 김석희, 『김사량 평가사-‘민족주의’의 레트릭과 김사량 평가』, 『일어일문학연구』 제57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4, 4-10쪽.

9) 이상경, 『암흑기를 뚫은 민족해방의 문학-김사량의 삶과 문학』, 김사량 저·이상경 편, 『노마만리』, 동광출판사, 1989, 406-408쪽.

10) 김사량은 해방 후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머무는 동안 『민성』 편집자의 요청으로 『연안망명기-山寨譚』(1946년 1월호에 『중이騷動』, 2월호로 『담배와 불』) 두 편을 발표했고 그 후 평양에 돌아가서 다시 태항산근거지에서의 기록들을 소재로 『민성』에 『驚馬萬里-延安亡命記(序言/驚馬萬里)』, 『驚馬萬里-延安亡命記②~⑦』(『민성』, 1946년 3월호, 4월호, 6월호, 11월호, 1947년 2월호<北朝鮮 特輯號>, 3월호, 7월호)을 연재했다. 1947년 8월에 연재가 중단된 후 김사량은 1947

데, 이때 작품집 부제-‘항일중국망명기’와 앞부분에 실린 사진들<sup>11)</sup>은 『노마만리』가 어떤 시각에서 재전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마만리』에 대한 평가는 80년대 말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도 해외 독립운동 세력 중 하나였던 조선의용군의 존재에 주목하여 ‘소중한 역사의 기록’이자 ‘항일의 빛나는 저항문학’<sup>12)</sup>으로 평가되었다. 김사량은 운동주와 견줄만한 저항 문학자로 조명되었다.

남북한의 이상 논의들은 ‘항일문학’이라는 공통분모를 취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노마만리』를 재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마만리』에 대한 평가는 단행본에만 있는 김일성 및 그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찬양’에만 주목하여 김일성 수령화 작업의 일환으로 복속시키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현대사의 ‘암흑기’가 가져다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해외 독립운동, 즉 의용군의 항일투쟁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항일문학’, ‘저항문학’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신형기의 주장대로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데 항일무장투쟁의 전력이 아니라 이를 읊기는 이야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

년 10월 평양에서 『노마만리』(평양: 양서각)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김사량 사후인 1955년에 평양 국립출판사에서 『김사량 선집』을 출판했는데 그 속에도 『노마만리』가 수록되어 있다. 布袋敏博, 『초기 북한문단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김사량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8-33쪽 참조. 『항일중국망명기-노마만리』(김사량 저·김재용 편주, 실천문학사, 2002)에는 이상 세 시기의 텍스트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 11) 사진은 주로 염인호의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 2001)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만큼 김사량보다는 태항산 일대에서 활동한 조선의용군의 행적을 전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12) 김재용, 『해제-김사량과 『노마만리』』, 김재용 앞의 책, 20쪽; 김재용, 『김사량-망명 혹은 우회적 글쓰기의 돌파구』,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242쪽; 김재용, 『일제 최후기 조선 문학과 중국』, 『현대문학의 연구』6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233-237쪽. 이러한 흐름은 중국 학계에도 이어져 2005년 한중 작가협회 공동으로 태항산 조선의용군 군영이 있던 호가장(胡家庄) 마을 입구에 김학철, 김사량 ‘항일문학비(抗日文學碑)’를 세우면서 김사량은 중국에서도 항일투사로 부각되었다.

즉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는 민족이야기로 쓰였다<sup>13)</sup>고 한다면, 남한 사회에서도 ‘항일문학’이란 마찬가지로 지식인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시대의 이야기’에 다름 아니었다.

2000년대 이후 접할 수 있는 북한 자료들이 풍부해지면서 한국에서 『노마만리』에 대한 연구는 또 북한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활발한 논의들이 오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곽형덕의 경우 『노마만리』의 세 판본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김사량이 태항산-의용군 체험과 기억을 해방 후 신속하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 질서 속에서 『노마만리』에 담아내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찬양은 김사량이 북한의 정치 상황에서 ‘기억’을 ‘기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와의 격투의 흔적을 아로새긴 것으로, 그가 다시 한 번 국가가 요구하는 글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보았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체제 순응적’, ‘기회주의’<sup>15)</sup>라는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노마만리』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텍스트 자체의 서사구조와 서술 방식을 깊이 있게 파헤친 유임하의 연구는 주목해볼 만하다. 그는 『노마

13) 신형기,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 삼인, 2015, 72쪽.

14) 곽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267-390쪽.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고인환의 「김사량의 『노마만리』 연구: 텍스트에 반영된 현실 인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어문연구』 59집, 어문연구학회, 2009, 231-255쪽), 김혜연의 「김사량과 북한 문학의 정치적 거리」(『한국학연구』 3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9, 77-100쪽)를 들 수 있다.

15) 정백수는 해방 직후 문학자들의 자기비판에 직면하여 김사량이 ‘일본어’ 창작경력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해방직후의 위기상황을 식민지말기에 연안지구로의 탈출이라는 ‘항일’ 경력으로 극복하려 했고, 다음으로는 연안과 연결되어 선전되는 작품을 다수 발표했던 자신의 과거가 초래하게 될 정치적 위기를 김일성의 영웅화를 작품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사량의 이런 기회주의적 면모는 북한에서 김사량의 문학 활동 전체의 흐름을 특징짓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鄭百秀, 「『抗日鬪爭文學』というイデオロギ—金史良の中國脱出紀行『驚馬万里』」, 『櫻美林世界文學』(3), 櫻美林大學世界文學會, 2007.03, 1-17쪽.



만리』는 식민지기 서발턴에 대한 탐색이라는 기존의 익숙한 경로에서 이탈하여 제국과 길항하는 탈식민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자기 성찰적 서술방식을 통해 ‘자기 신화 만들기’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6)</sup> 광형덕은 『노마만리』를 재론하는 글에서 작품 속 중국 공산당의 신민주주의에 관한 내용과, 항일전쟁기 일본인 반전 운동가 가지 와타루(鹿地亘 국민당 측에서 활동)는 배제된 채 팔로군과 함께 한 일본인 반전 운동가 노사카 산조만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억이 기록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에 『노마만리』 텍스트는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에 조응하는 형태로 완성돼 갔다고 보았다.<sup>17)</sup>

이에 본고는 기존의 『노마만리』 관련 논문들에서 자주 언급되기는 했지만 결코 주목받지 못했던 ‘연안(延安)<sup>18)</sup>이란 키워드에 입각하여 『노마만리』를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안은 중일전쟁시기 조선독립단체와 조선의용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였지만 남북 분단 후 북한에서의 연안파 숙청과 남한에서의 ‘반공’ 사상으로 인해 남북한으로부터 오랫동안 잊힌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방기라는 특수한 시공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당시 잡지와 신문에서 ‘연안’은 결코 낯선 존재는 아니었다. 본고는 ‘연안’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선, 해방 직후 조선의용군의 귀환과 함께 부상한 ‘연안’ 담론 속에서 『노마만리』의 수용 과정, 다음으로 김사량 자신이 결코 도착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이 그의

16) 유임하, 『김사량의 『노마만리』 재론-서발턴의 탐색에서 제국주의와의 길항으로』, 『일본학』 제40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5, 147-175쪽.

17) 광형덕, 『해방 전후 김사량문학과 동아시아-『노마만리』 재론』,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2018.6, 43-74쪽.

18) 중국근현대사 및 문학사에서 ‘연안’이란 특별한 존재로,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본고에서 『노마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제안한 ‘연안’ 역시 실제 장소로서의 ‘연안’(여러 항일근거지들도 포함), ‘항일’의 대명사로서의 ‘연안’ 뿐만 아니라 ‘정풍운동’을 비롯하여 ‘연안’에서 일어났던 중대한 정치 사건들과 그에 따른 지식인들의 변화, 문예의 노선과 창작경향 등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한다.

작품과 그와 관련된 소식들에 빈번히 나타나는 원인 및 실제 연안에서 일어난 ‘정풍운동’이 『노마만리』라는 작품에 남긴 흔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항일의 성지, 도래할 미래상 — 해방 직후 ‘연안’ 이야기와 『노마만리』

연안(延安)은 1936년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홍군이 국민당 군에 쫓겨 2만 5천리 대장정(大長征)을 치른 후 자리를 잡게 된 곳으로, 중국 공산혁명의 발상지이자 신중국의 모태로서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홍색교육(紅色教育, 공산교육)’ 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안은 지리적으로 중국 서북부의 오지에 위치하여 있었고 당시 중일전쟁의 전면 폭발 및 국공합작의 결렬로 인해 오랫동안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안이 중국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인 기자 에드가 스노(Edgar Snow, 1905~1972)<sup>19)</sup>에 의해서였다.

스노의 ‘연안 방문기’는 영미권에서 폭발적인 반응과 인기를 얻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론이 중국 공산당과 홍구(紅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였고, 중국공산당이 꿈꾸는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sup>20)</sup> 소련과 차별되는 또 하나의 공산국가가 태동하고 있었

19) 스노는 1928년에 중국 상해에 와서 1932~1941년까지 런던 데일리헤럴드지(Daily Herald, 영국노동당 기관지) 특파원으로 있는 동안 많은 중국의 지식인 작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1936년 6월에 북경에서 연안으로 들어가 모택동, 주은래 등 공산당 간부들과 만나고 교류했으며 모택동과 중요한 담화를 나누었다. 같은 해 10월에 그는 연안에서 빠져나와 『밀러즈 리뷰(Millard's Review)』(1917년에 미국인이 상해에서 창간한 영자신문)에 모택동과 자신과의 대담을 게재했고 1937년에 영국에서 『Red Star Over China』(London, Victor Gollancz Ltd, 1937.10)을 탈고했다. 【中】 에드가·스노 저, 董樂山 역, 『서행만기(西行漫記)』, 解放軍文藝出版社, 2002, 384-386쪽.

던 연안의 국제적 의미는 남다른 것<sup>21)</sup>으로, 이즈음 연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붉은 별’로 떠오르게 되었다.

『Red Star Over China』는 영국에서 출판된 후 바로 중국으로 반입되어 상해에서 『서행만기(西行漫記)』(집단 번역, 상해 復社, 1938년 2월)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sup>22)</sup>되었다. 이 책은 전국적인 항일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었으며 스노의 발자취를 따라 서구의 기자들, 해외의 사회주의자들과 반파쇼 세력, 그리고 중국 내 진보적 지식인 청년들이 연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 중 1935-1945년 사이에 연안에서 활동하거나 연안을 다녀간 조선인은 2, 3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sup>23)</sup> ‘특종’ 발굴을 위한 영미 기자들의 연안 방문과 달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의 혁명가나 지식인에게 있어 연안의 의미는 좀 더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연안은 ‘항일의 성지’이자 희망과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태항산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건립된 이튿날인 1941년 7월 8일 연안에서는 조청 섬감녕변구(陝甘寧邊區)<sup>24)</sup> 분회가 창립되었는데, 무정(武亭)은 이날의 대회에서 반일 민족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연안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건립하여 조선 혁명의 간부를 양성코자 결의

20) 또 루스벨트는 미국에서 출판된 스노의 책, 스노 본인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 공산정권의 향방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미군관찰조(美軍觀察組, 중국에서의 공식명칭, 영어로는 Dixie Mission)를 연안에 주둔시켜 공산정권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中】上海市美國問題研究所課題組, 『Edgar Snow 對中國共產黨發展國際關係的貢獻和影響』, 『湖北社會科學』, 2011년 제7기, 43쪽.

21) 신형기,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 삼인, 2015, 43쪽.

22) 【中】崔玉軍, 『抗戰時期到訪延安的美國人及其‘延安敘事’』, 『齊魯學刊』, 2017년 제5기, 38쪽.

23) 【中】王建宏, 『朝鮮革命者在延安活動述論(1935-1945)』, 『延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40권 제6기, 2018.12, 64-69쪽.

24) 일명 섬감녕(陝甘寧)혁명근거지. 지리적으로 중국 서북부의 섬서(陝西), 감숙(甘肅), 녕하(寧夏)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1937년에 연안에서 성립되었으며 모택동을 비롯한 공산당의 영도 간부들이 줄곧 이 곳에 있었기에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섬감녕변구 역시 전국 항일의 중심지였다.

했다는 점에서 연안은 조선인 독립운동의 중심<sup>25)</sup>이 될 것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뒤에 태항산에 설립되긴 했으나 1944-1945년 초에 이르러서는 국제 반과소전쟁의 승리를 앞두고 <조선혁명군정학교> 사생과 각지의 조선의용군은 연안에서 집결하게 되었다. 이들은 연안에서 다시 설립한 <조선혁명군정학교>에서 함께 학습하며 일제 패망 이후의 새 나라 건설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역량을 축적하고 있던 와중에 일제 패망의 소식을 접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연안에서 출발한 조선의용군의 귀국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결국 독립동맹과 의용군 지도자들만이 초라한 행색으로 귀국했고 대부분 병력은 중국 동북지역에 머물면서 중국인민군에 편입되거나 무장해체를 당한 채 개인의 신분으로 귀국해야만 했다.

이때 해방된 조선에 가장 먼저(1945년 11월) 나타난 조선의용군 ‘용사’는 바로 일본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온 김학철로, 그는 의용군 투사로서, 작가로서 민중의 환대를 받았다.<sup>26)</sup> 그의 고난의 투쟁경력—중국에서 오랫동안 항일운동을 하다가 조선의용군에 가담하며 호가장(胡家莊)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포로로 잡힌 후 감옥에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은 의용군의 항일투쟁사를 몸으로 전달해주고 있었다. 해방공간에서 발표한 그의 소설들은 재빨리 『조선의용군』이라는 단편집으로 출판을 계획하게 되며 신간 소개에는 “朝鮮義勇軍으로 抗日戰에 參戰하여 다리를 잃고 延安서 도라온 가장 期待되는 作家의 피로

25)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90쪽.

26) 김학철 자신의 회억으로는 “내가 서울에 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은 일본군과 직접 싸웠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학도병으로서 일본 측에서 싸운 사람은 있었지만 일본군의 반대 측에서 정면으로 전쟁을 한 경험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다리가 하나 밖에 없었기에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大村益夫, 『解放直後ソウル時代の金學鐵』, 『植民地文化研究：資料と分析』(17), 浦安：植民地文化學會, 2018, 58쪽.

記錄된 歷史的인 珠玉篇이다!”<sup>27)</sup>라고 쓰였다. 이 소설들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라기보다는 의용군 출신의 작가가 썼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의 전투경험과 철학의 몸, 투쟁의 기록으로서의 해방기 소설들은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1942년에 포로로 잡혀서부터 광복 전까지 3년 동안 일본에서 투옥 중으로 분명 연안에 있지 않았으나 ‘연안서 도라온’ 자로 회자되고 있었음은 ‘연안’이란 바로 조선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의 성지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연안’ 이야기란 바로 김일성 장군의 빨치산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로, 해방공간에서 반복 생산되고 있었다.

1945년 11월 하순, 연안에서 갓 돌아온 김태준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안에서 조선독립동맹의 활동, 중국 국내 사정, 조선의용군의 항일전에 대해 전달했으며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에 『연안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3회에 걸쳐 연재<sup>28)</sup>하기도 했다. 김태준은 항일의 전투 경험은 없었으나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약상—‘연안’ 이야기의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무정(武亭)이 창건한 조선의용군은 현재 병력이 5, 6만 이상이 될 것은 사실”로, 이들은 현재 만주에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sup>29)</sup> 연안에서 돌아오게 될 조선의용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유혈 투쟁을 한 진정한 용사들이며, 해방된 조선의 민중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무장부대로서 ‘연안’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다.

김태준의 『연안현지보고』 후, ‘재지 반도출신 학병위문’(1945.5) 도중 연안으로 탈출했다던 소문의 주인공 김사량이 서울에 나타났을 때 그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김사량은 1945년 6월 태항산 항일근거지에

27) 『신문학』 창간호, 신간광고, 1946.7.

28) 『연안행』, 『문학』 제1-3호, 1946.7-1947.4.

29) 『進歩的인 獨立同盟의 活動 義勇軍은 抗日戰에도 活躍-金台俊氏의 延安現地報告』, 『중앙신문』, 1945년 12월 7일, 1면.

도착하였으며 거기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 귀국선발대에 들어 귀국길에 올랐다. 흥미로운 것은 김사량의 행방에 대해 언론은 태항산, 화북, 연안 등 지리적 장소를 혼용 내지 오용<sup>30)</sup>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전달된 의미는 김사량이 연안에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봉황각 좌담회에서 김남천도 “최근 색다른 체험을 하고 연안 방면에서 돌아오신 김사량 씨”라고 소개하였고, 김사량 자신도 ‘태항산’과 ‘연안’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에게 ‘태항산’이나 ‘연안’은 모두 ‘항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안으로 갔다’는 것은 바로 ‘항일하러 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지난五月 삼엄한 일인 경관과 헌병들의 감시를 뚫코 北京, 南京을 거쳐 延安까지 갔다가 이번 조국의 해방과 함께 도라온 작가 金史良씨는 그간 고향인 平壤에 있다가 十일아침 서울에 왔는데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였다.

“延安까지 가는데 꼭 한달이 걸렸으나 이번에 도라오는 길은 두달이상이 걸렸으며 延安의 제일선인 太行山속에 드러있다가 三천리를 거러 나왔다.”

- 『太行山서 三千里를 步行 延安갔던 金史良 氏의 入京談』,  
『자유신문』, 1945년12월11일.

김사량의 『노마만리』에서 비전투지역인 중경(重慶)과 달리 연안은 ‘적과 총칼을 맞대고 싸워나가는 곳’,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는 곳’으로 항일무장투쟁이 직접 벌어지는 장소로 재현되고 있었다. 김사량은 『민성』에 『연안망명기-산채담』을 먼저 발표한 후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제로 연안에 가지 못했으나 제목에서부터 연안을 내세우고 있었다. 또 작품 게재 당시 『민성』 편집자도 김사량을 ‘연안에 망명하였던 작가’<sup>31)</sup>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항일의 성

30) 『太行山서 三千里를 步行 延安갔던 金史良 氏의 入京談』, 『자유신문』, 1945년 12월 11일, 2면; 『소설가 김사량 씨 華北延安으로 가신 뒤 消息이 없더니 今般 무사히 귀국하여 入京』, 『중앙신문』, 1945년 12월 12일, 2면.

지-연안’이라는 이미지는 의용군의 항일투쟁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사량이 태항산 근거지에서 창작하고 무대에 올렸던 희곡 『호접(胡蝶)』<sup>32)</sup>은 가장 일찍 조선의 용군을 영웅화한 작품으로, 김사량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 작품을 먼저 내놓았다.

김사량이 『민성』지에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본격적으로 연재하고 있을 즈음, 『민성』의 경쟁지였던 『신천지』 역시 1946년 3월호(제1권 제2호)에 ‘독립동맹특집’을 선보였다. 이 특집은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및 그들의 투쟁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으며, 5월호에는 의용군 출신인 김학철의 소설 『아아, 호가장-피로 기록한 항일사』, 10월호부터는 님 웨일즈의 『김산: 아리랑-朝鮮人 反抗者의 一代記』(辛在敦 역)<sup>33)</sup>를 번역, 연재하기도 했다. 특히 해방기 잡지에서 에드가 스노의 글들이 번역 게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붉은 별』이 아닌, 님 웨일즈가 남편 스노와 함께 연안에 갔을 때 인터뷰한 조선인 혁명가 김산(본명 장지락)의 일대기를 연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해방된 조선에서 ‘연안’은 ‘항일의 성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조선독립단체와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천지』의 이 기획특집을 통해 『민성』에 실린 김사량의 『노마만리』를 반추해볼 때 이 작품이 해방 직후 어떠한 맥락에서 수용되고 있

31) “日帝政은 그 斷末魔에 잇서서 直筆을 든 作家에 대하여 強壓을 加하여, 혹은 붓을 껴게하고 혹은 이를 붓들어 囹圄에 監禁하기에 汲汲하였을 때, 海外革命勢力에 協力코져 朝鮮을 脫出하여 延安에 亡命하였던 作家 金史良氏가 잇섯슴은 우리 記憶에 새롭다.” 『민성』제2권 제2호, 1946.1, 3쪽, 布袋敏博, 앞의 논문, 29쪽 재인용.

32) “『호접』3막, 김사량 작,(일명 ‘호가장의 전투). 조국애에 불타는 조선의용군의 29용사가 왜군을 격파한 혈투의 일대감동편”, 『문화통신』 제2권 제1호, 서울, 1946. 1.20. 20쪽.

33) 님 웨일즈(Nym Wales, 1907~1997. 본명은 Helen Foster Snow)의 『Song Of Arirang』은 1937년에 남편 스노와 함께 연안에 갔을 당시 만났던 한국인 독립 혁명가 김산(본명 장지락)의 일대기이다.

있는지도 더욱 뚜렷해진다.

‘연안’ 및 ‘연안’ 이야기들의 존재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해방은 결코 ‘도적같이 찾아온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우리(민족)’가 이국 타지에서 피와 생명으로 바꾸어 온 것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갑작스레 해방을 맞은 상황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는 식민지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일 수 있었다.<sup>34)</sup> 앞서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이야기의 역능을 짚어보았듯이 해방직후 양산되는 ‘연안’ 이야기 즉 조선의용군과 독립동맹의 항일의 이야기는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역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사량의 『노마만리-연안망명기』와 『노마만리』에서 연안이란 ‘항일의 성지’라는 의미에서 한 발 나아가 항전 승리 후 찾아오게 될 미래와 관련되는 장소로서 건국을 눈앞에 둔 탈식민 주체들이 참조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었다. 김사량이 중경을 포기하고 연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안’이라는 ‘미래’를 미리 견학할 수 있는 피안의 이상향으로 상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안은 반제반봉건이라는 오랜 과제를 비약적으로 해결할 인민의 국가 수립을 목표하는 점에서 해방 조선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아시아적 예증이 아닐 수 없었다. ‘신민주주의’를 배워 건국의 진향에 이바지하겠다고 한 김사량의 발언은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sup>35)</sup> 태항산채(근거지)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늘’, ‘새날을 맞이하는 세계’를 보았으며 이 대지에서 ‘새 정신, 새 생활, 새 문화’가 이룩되고 있다며 흥분을 금치 못했다. 그가 탈출 노상에서 지켜보았던 중국의 공산혁명은 “거의 같은 단계에 있는 조선에 무한한 경험과 교훈을 제시해주는바”로서 따라 배워야 할 것이었다.

특히 김사량이 칩첩산중에서 백오십 리를 달려 의용군의 본거지인 남

34) 신형기, 앞의 책, 71쪽.

35) 위의 책, 43쪽.



장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오색영롱한 신천지가 펼쳐진다.

백양나무와 호두나무, 감나무 숲이 여기저기 몰려선 사이를 백사지가 지도같이 펼쳐진 가운데 한 줄기의 시내가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강 이름을 물으니까 두루두루 산간을 감돌아 창덕으로 흘러내리는 맑은 시내라고 해서인지 청창하(淸彰河). 팔따시만한 메기와 송어며 바위만한 자라가 꿈틀거린다는 것이 바로 이 강일 것이다. 태항산중에서도 드물게 맑은 물이라고 한다. 강을 끼고 점점이 촌락이 들어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기름진 밭이 초록 비단을 깔아 바야흐로 오곡백화에 무르녹았다. 푸르른 전원에 수를 놓은 듯이 웅기종기 하얗게 서리어 도는 것은 식체로서 유명한 황화의 재배전이라고 한다.(김사량 지음, 김재용 편주, 『항일 중국망명기-노마만리』, 실천문화사, 2002, 243쪽)

‘동맹과 의용군의 본거지’인 남장춘에 대한 신화적인 분위기의 묘사는 동행했던 노인이 “왜놈들이 하나도 없는, 사철 꽃이 만발하고 땅은 기름지며 바다에는 굴, 조개, 고기 수북한 꿈같은 섬”, “의인들이 많이 모여 나라를 찾으려고 무술을 닦고 있다”는 ‘남풍도’라는 전설 속의 공간과 합치되는 것으로 ‘나’는 노인에게 “여기가 분명 남풍도인가 봅니다.”라고 말한다. 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보았던 이 광경은 『연안망명기-산채기』에서 언급했던 열악한 근거지의 경제적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는 김사량이 꿈꾸었던 ‘연안’이자 도래해야 할 조선의 미래에 다름 아니었다.

김사량은 남장춘의 군정학교에서 ‘우렁차게 울려 나오는 나팔소리’와 ‘왜놈 군대를 죽치며 조국을 향하여 진격할 우리의 군인들’의 구령 소리와 군가를 들었으며, 그들이 노동하는 모습과 학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감격한다. 또 담벼락에 장식된 중국 깃발과 ‘우리’의 깃발, 조선어와 일본어로 쓴 항일의 구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김사량이 식민지 말기 일본어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고민과 괴로움을 식민지 대만의 작가 룽잉쥙(龍瑛宗)과의 서신<sup>36)</sup>에서 토로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일인(日人)이 없는 근거지에서 누릴 수 있는 말과 글의 자유, 오감을 자극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그에게 무엇보다 큰 감격과 해방감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김사량이 비록 연안에 가보지 못했지만, 남장춘은 곧 김사량이 상상했던 ‘연안’의 모습이었으며 또 장차 건설해야 할 새 조선의 풍경이었다.

『노마만리』에서 ‘연안’을 통해 상상되는 미래는 또 자연스레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고향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버드나무 선 조그마한 섬 동네’ 고향은 종달새가 노래하고 송아지가 풀을 뜯는, 처녀애들의 명량하고 쾌활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고장으로 ‘내게 있어서 유일한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였다. 즉 ‘연안’이란 또 김사량에게 잃어버린 과거의 고향이자 되찾아야 할 고향으로 다가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으로 이 모든 행복이 짓밟혀 파괴되었음을 떠올리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개하고 목숨 바쳐 싸우리라 결심한다. 이러한 서사적 특징은 『빛 속으로』, 『물오리섬』, 『태백산맥』을 비롯한 식민지기에 창작한 소설과도 이어지는 부분으로, 김사량에게 있어 인간 세상이란 디스토피아거나 유토피아로, 제3의 중간지대란 결코 존재할 수도 없었다.

### 3. 지식인의 사상 개조와 자기비판 — 연안 ‘정풍운동’과 『노마만리』

앞서 언급하다시피 김사량의 『노마만리』의 육필원고는 1945년 당시 중국의 태항산 항일 근거지 내에서 씌어 진 것이다. 따라서 당시 근거지

36) 김사량은 대만 출신의 작가인 룡잉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지인을 향한 작품을 쓴다는 것이 두려우며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느낌을 ‘흔들리는 손’이라 표현하고 있다.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없는) 정치—루쉰 룡잉쥬 김사량 ‘야’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제6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9, 378-379쪽.

내 정치·문화적 분위기 역시 작품 분석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1942년부터 1945년 일제 항복 전까지 연안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휩쓸었던 ‘정풍운동(整風運動)’<sup>37)</sup>과 1942년 5월에 문예 공작자들을 상대로 한 모택동의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sup>38)</sup>(이하 「강화」)는 공산당 내의 사상정치 운동인 동시에 문예창작의 근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강화」는 지식인(문예공작자)을 소부르주아 계급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상 개조와 자기비판을 촉구했다.<sup>39)</sup> 정풍운동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근거지에서는 차츰 지식인의 자기비판이 일상화되며, 5·4 이래 루쉰 식의 사회 ‘암흑’ 면에 대한 비판과 폭로<sup>40)</sup>의 글쓰기보다는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기비판의 서사가 근거지 문예 창작의 중요한 한 갈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식인의 자기비판은 해방 직후 조선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

37) ‘정풍운동(整風運動)’(1942-1945년)–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구는 일본과 국민당으로부터 강력한 공격과 봉쇄정책에 직면하게 되자 이러한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또 당 내부의 노선차이를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해, 새로 가입한 소부르주아출신 당원들을 개조 대상으로 전 당 차원에서 보편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운동을 진행했다.

38)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는 1942년 5월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좌담회에서 모택동이 행한 연설로 그 목적은 ‘민족의 적을 타도하고 민족해방이라는 임무를 완성’하고자 문예공작과 일반 혁명공작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강화」는 문예공작자의 입장, 태도, 공작 대상, 공작, 학습 등 문제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1943년 11월에 당중앙선전부가 「강화」를 당문예정책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면서 문학, 예술계의 새로운 방향을 규정짓는 중요한 발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9) ‘소부르주아계급은 ‘공농병(工農兵)’을 포함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대조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모택동은 「강화」에서 ‘대다수 지식인은 소부르주아출신이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문인들에게 정풍운동이란 바로 이 ‘소부르주아’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中】 吳敏, 『延安文人研究』, 文匯出版社, 2010, 92-102쪽.

40) 백원담은 “「강화」는 애초의 성립원인이 연안에 온 진보세력, 특히 문예종사자들의 한편에 낭만성이 내함되어 있었지만 나름의 사명의식이 연안정권의 권위주의와 물질적 궁핍에 대해 ‘루쉰’ 식의 투창과 비수를 들이던데 있다”고 했다. 백원담, 『모택동 『문인문예강화』의 재음미—지식인 혹은 문예주체의 상의 정립과 관련하여』, 『중국어문학논집』 제11호, 중국어문학연구회, 370쪽.

제로 제기되었다.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민족 자신의 피로써 얻은 것이 아니다’<sup>41)</sup>라고 선언했으며 『조선공산당 1945년 8월 테제』는 항일, 반파쇼의 전장에서 응당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조선민족의 ‘전 민족적 자기비판’을 촉구했다. 동시에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의 『조선민족문화건설의 노선(잠정안)』(1946.4)에서는 7번째 문제로 자기비판의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작가, 예술가, 학자가 왜적의 강압 밑에 본의 아닌 언행을 하여 소시민 출신의 투쟁적 취약성을 노정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더욱이 문학자에 있어 특히 자기비판은 재출발의 한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sup>42)</sup>고 했다. 즉 소시민성은 과거 문화예술인들의 친일을 낳은 원인이자, 현재도 지속될 수 있는 소부르주아의 의식으로서 경계되고 있었으며, 문학자들의 자기비판은 민족적 자기비판과 계급적 자기비판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포함<sup>43)</sup>하고 있었다.

해방이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앞서 수행되어야 했던 것은 과거에 대한 성실한 자기비판이었다. 이러한 자기비판은 자신의 사고와 선택을 조건 지었던 여러 상황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되어야 했으며 또 자기 안에 스며있는 모든 식민지적인 것을 씻어내려는 의식적 노력 즉 자기혁신도 포함되었다.<sup>44)</sup> 이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체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작가를 포함한 모든 지식인에게 요구되었다. 실제로 해방 직후 지식인 계층의 자기비판<sup>45)</sup>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이무영은

41) 신형기, 앞의 책, 83쪽 재인용.

42) 송기환·김외곤, 『해방공간의 비평문학1』, 태학사, 1991.10. 159쪽.

43) 한아진, 『해방기 이용악의 자기비판과 시적 변모』, 『한국현대문학연구』46, 한국현대문학회, 2015.8, 198쪽.

44) 신형기, 『해방 직후 문학 논의의 쟁점』, 박명림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6-쟁점과 과제』, 한길사, 1989, 265-267쪽.

45) 해방기 문인들의 자기비판을 좌담회 『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예술』 3호, 1946.1. 서울 雅紋園), 『문학자의 자기비판』(『인민예술』 2호, 1946.10.

해방 후 일 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받았던 자기비판을 ‘강요하는 자기비판’<sup>46)</sup>이라고 하면서 괴로움과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인들의 공개적인 자기비판은 앞서 조선공산당 측에서 말했던 ‘민족적 자기비판’이라는 집단적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문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자기비판은 전 민족의 문제로서 귀결되어버려 진정한 자기비판이 수행되기가 어려웠다. 자기비판의 문제는 일종의 통과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문학자들이 사실상 통렬하고 근본적인 자기비판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sup>47)</sup> 결국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비판들은 있었으나 『문학자들의 자기비판』이라 제목을 내 건 조직적 차원의 자기비판은 해방도 한참 지난 당해 12월에 이르러서야 임화를 위수로 하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진행되었다.

일명 봉황각 좌담회라 불리는 이 좌담회에서 ‘연안’에서 돌아온 김사량과 이태준 사이에 발생한 언쟁은 잘 알려져 있다. 김윤식은 김사량이 이 좌담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오류를 비판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혁명 세력의 일원이라는 ‘지위의 우위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sup>48)</sup> 그러나 김사량이 봉황각 좌담회에서 보여주었던 떳떳함과 당당함, 그 어느 참석자보다도 논리적이고 철저했던 자기비판은 위에서 말했던 ‘정풍운동’ 즉 항일근거지에서 요구되었던 소부르주아 지식인의 사상 개조와 자기비판,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조선에서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던

서울 봉황각), 한효의 『문학자의 자기비판』, 이원조·홍효민·권환·김영건 「재출발에 있어 문학적 자기비판」(『신문예』 2호, 1946.7), 김기림 등, 「건국동원과 지식계급」(『대조』 2호, 1946.7) 등이 있다.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2쪽.

46) 이무영, 「강요되는 자기비판」, 『경향신문』, 1946년 10월 6일. 칼럼/논단.

47) 구재진, 「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 제47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2, 272쪽.

48)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화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81쪽.

지식인 문인의 자기비판이라는 틈새 속에 위치 시켜 볼 때 ‘지위의 우위성’만이 아닌 새로운 균열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말기에 조선을 탈출하여 항일의 최전선에 달려갔던 김사량에게 있어 자기비판이란 조선에 남아있었던 기타 문학자들보다 한발 앞선 것이었으며 또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항일근거지에서 지식인의 사상 개조와 자기비판은 일상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부르주아라는 계급 출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김사량도 해방 후 입경 시 “문학방면의 작가들을 이야기하자면 팔로군 관계에는 별로 이려타할 작가가 없으며 본래가 수가 적은데다가 사상적으로 늘 정풍(이곳서 말하는 숙청)이 잇서 사상이 건전치 못한 작가는 그 지위를 보존치목하며……”<sup>49)</sup>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형적인 ‘소부르주아’ 출신으로서의 김사량 역시 사상 개조와 자기비판은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일부 탈출 학도병들의 수기를 본다면 김사량이 태항산 근거지에서 사상 개조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들이<sup>50)</sup>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김사량 자신의 계급 출신<sup>51)</sup>과 연결해 볼 때 신빙

49) 『太行山서 三千里를 步行 延安갔던 金史良 氏의 入京談』, 『자유신문』, 1945년 12월 11일, 2면.

50) 당시 탈출 학도병이었던 신상초는 근거지에서 강요되는 사상개조와 자기비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치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회억했다. 그는 귀국길에서 “인텔리 출신의 자타가 공인하는 공산당원이었고 후일 남노당 간부로 있다가 붙잡혀 총살당한 김태준마저가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투쟁대회를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작가로서 해방 직전에 여기까지 발을 들여 놓았던 김사량은 일제가 파견한 밀정으로 몰릴 뻔했다고 하니……”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신상초, 『탈출』, 녹문각, 1966, 149쪽.

엄영식 역시 탈출 학도병으로서 훗날 『탈출』에서 사상개조를 강요받았던 점과 화북지대 이익성이란 지대장으로부터 “김사량이란 자가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그는 연금상태에 있으며 매일 자술서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었다고 했다. 엄영식, 『탈출』, 야스미디어, 2005, 110쪽.

51) 김사량은 평양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내 최창옥 역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또 김사량은 일본 유학시절에 일본에서 등단했고 일본어소설을 많이 창작했으며 탈출 당시 신분은 ‘재지 반도출신 학병 위문’ 작가였다. 계

성이 있어 보인다.

다시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본다면 작품 속 Y거인은 당시 북경반 점에 머물면서 막연하게나마 탈출의 기회를 잡아보려는 ‘나’를 찾아와서 ‘연안’ 방면으로 갈 것을 제안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혹시 스파이는 아닐까 걱정하는 나에게 Y거인은 “소설을 통해 당신을 믿기에.”라고 하는데 ‘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대뜸 그와 손잡게 되었다고 했다. 이 대화는 『문학자의 자기비판』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때 결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대목임이 분명하다. 좌담회에서 김사량은 언어는 하나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며, 그 언어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식민지 조선의 ‘진상’—과, 그러한 언어라도 그것으로 적극적이고 양심적이며 민족적인 작가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일본어로 창작한 소설들은 그 동기나 내용에 있어 전혀 의심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소설을 통해 당신을 믿기에”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놓인 것으로 과거 자신의 문인으로서의 행적은 전혀 의심스러운 면이 없으며 ‘소설=믿음’의 등식을 성립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즉 김사량은 결코 민족 작가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 좌담회 문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연안 다녀온 김사량에게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김사량의 자기비판은 좌담회 전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해방 직전에 이미 자기비판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김사량과 이제 막 자기비판을 시작한 이태준 사이에는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중국의 항일근거지에서 진행되었던 ‘정풍운동’과 지식인의 자기비판을 참조 점으로 해방직후 조선의 지식인 문인들의 자기비판을 재고해볼 때 이들의 자기비판은 사실 과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않았음에 대한 반성으로, 이를 통해 결코 양심적인 자기비판, 새로운 자아로

---

다가 그의 형인 김시명은 당시 총독부 전매국장까지 한 유명한 ‘친일파’였다는 점에서 김사량은 충분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나아갈 수는 없었다. 거기에는 모택동이 『강화』에서 말했던 ‘장기간의 고통스럽기까지 한 연마과정’ 즉 새로운 자아로 성장하기 위한 ‘고난의 서사’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 ‘고난의 서사’란 항일근거지로 찾아 들어가는 김사량의 험난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근대문명을 습득한 지식인이 이제 민중의 계몽자로서의 주체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피계몽자의 위치에서 개조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노동자, 농민 대중과 혁명 간부, 혁명적 지식인들과의 비교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부르주아 계급으로서의 모든 타락한 가치관과 습성들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부정하며 마침내 ‘새 세상’을 맞이할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노마만리』를 식민지 시대 양심적 지식인의 자기반성<sup>52)</sup>으로 보든, 자기성찰을 통한 자전적 글쓰기<sup>53)</sup>로 보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자기비판 의식은 그만큼 철저하고 강력했으며 그것은 공(工), 농(農), 병(兵)에 포함되지 않는 소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타자’ 신분에 대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김사량이 귀국 후 서울에 나타났을 당시 가장 먼저 문단에 내놓은 것은 『연안망명기-산채기』-『종이소동』, 『담배와 불』이었다. 『산채기』는 ‘회상풍’의 에피소드로, 실은 김사량이 근거지 체험에서 가장 인상 깊게 경험했던 ‘물자난(物資難)’을 다루고 있다. 당시 근거지 정부는 국민당 정부와 일제의 경제적 봉쇄로 인한 물자난과 가격폭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급제’와 자급자족의 생산방식을 실행하고 있었다. 근거지의 대다수 민중이 식량난으로 하루에 두 끼밖에 먹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김사량은 헐벗고 굶주리는 문제보다도 ‘종이’, ‘담배’, ‘불’을 가장 필요로

52) 이해영은 『노마만리』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자기반성의식이 의식 흐름의 구조음으로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해영, 『1940년대 연안체험 형상화 연구: 『항진별곡』, 『연안행』, 『노마만리』를 중심으로』,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01, 64-67쪽.

53) 유임하, 앞의 논문.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종이’, ‘담배’, ‘불’을 걱정해본 적이 없는 ‘나’는 과거 넉넉한 물질생활을 누렸던 부르주아 지식인 출신으로서 ‘종이’는 ‘나의 집 서재 방에 그득히 쌓여 있으며’, ‘담배’ 역시 근거지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아물부리 파이프’로 피웠으며 켈런이나 비싼 성냥도 몇 갑씩 사서 넣을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근거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는 ‘다복한’ 과거 생활을 회상하며 이를 ‘소시민의 타성’이라 비판하고 부정하며 과거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근거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 이야기의 기록자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적구에 공작하러 갔던 동무가 왜놈의 편전지를 들고 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나’는 달려가 ‘근거지에 차고 들어간 시계’로 종이를 바꾼다. 담배 역시 근거지에 들고 들어간 ‘여분의 노타이 셔츠와 겨울 양복바지’를 팔아 구하게 되며 ‘불’은 근거지 토착민의 방법을 배워 해결한다. 그는 과거의 ‘유물’이자 근거지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소부르주아의 것, 이질적인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시계’, ‘양복’, ‘노타이셔츠’를 버리는 방식을 통해 부르주아 지식인으로서의 ‘외양’을 탈피하고 또 근거지 민중에게서 배우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명실상부한 민중-‘산채인’으로 탈바꿈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

『노마만리-연안망명기』는 조선에서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북경에서 경한선(京漢線)을 타고 가다가 폭격을 맞아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까지만 연재되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여기서도 ‘나’의 자기비판은 계속하여 나타난다.

“타류 속을 숨 가쁘게 헤엄치던 생활! 도시 인텔리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무난한 살림살이에만 급급하던 태도! 양심의 갈피 아래 요리 저리 헤매며 그러되면 부스러질 만치 연약하기 유리알 같은 정신! 거기에 는 하나도 합리화할 과거가 없었다.”(김사량 지음·김재용 편주, 『항일

중국망명기-노마만리』, 실천문화사, 2002, 305-306쪽)

탈출 길에 나선 ‘나’는 항일이라는 위대한 혁명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자로서 과거 도시 인텔리로서의 연약함과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려던 소시민성 등에 대해 무자비하고 냉혹한 비판을 가한다. 『노마만리-연안망명기』는 비록 과거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플롯들은 망명할 때부터 적어놓은 기록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 있어 탈출 당시 ‘나’의 심리를 생생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다. 기차에 오른 나는 새로운 자아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기에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전면부정과 결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단행본 『노마만리』에서도 김사량은 여전히 소부르주아라는 신분에 대해 집요하게 성찰하고 비판하고 있었는데 서사 전략 상 ‘과거의 나-구아(舊我)’와 ‘현재의 나-신아(新我)’라는 두 개의 ‘나’를 병치시키고 있다. 이는 ‘정풍운동’ 및 모택동의 『강화』 이후 소부르주아 출신의 지식인-문인들에 대한 계급적, 문학적 차원의 비판과 자기비판이 강조되고 일상화되면서 연안 문인들의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사수법이였다.

그러나 연안의 중국 문인들의 자기 비판적 서사와 다른 점(오히려 스노와 같은 외국인 기자들의 보고문학과 닮은 점)이라면 바로 김사량은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국내’에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 전달자의 임무를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마만리』는 사실상 두 개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실제 기록으로서의 이야기 즉 의용군의 중국에서의 항일투쟁의 이야기 및 근거지에서 혹은 근거지로 향하는 노상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와 그 속에 은폐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전달자, 관찰자로서의 ‘나’는 은폐된 화자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나의 과거와 연결되는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는 연안망명기의 내적 시간 관계-‘과거의 나’(구아 舊我)와 ‘현재의 나’(신아

新我)–를 만들어냄으로써 교묘하게 ‘나’를 위한 이야기의 공간을 마련한다. ‘신아’는 ‘신 인간’으로서 도덕적, 양심적으로 우위에 있기에 수시로 구아를 해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의 과거 생활을 타자화 시키며 ‘신아’는 작품 전편을 조망하는 위치에서 ‘구아’를 바라보며, 심문한다.

조국의 깃발은 나의 가슴에 안기기 전에 몸뚱이를 두다리며 묻는 것이다. 충실하였느냐 조국 앞에? 그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인가? 안 일이었다. 하찮은 자기변호의 그늘 밑이었다. 자포자기의 독배를 들며 나날이 여위어가는 팔다리를 주무르던 일이 결코 자랑일 수 없으며 깊은 골짜기로 찾아 들어가 삼간초옥에서 나물을 먹고 물마시며 팔을 베고 道士인 양 晝耕夜讀하며 누웠대서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엄정히 말할진대 도리어 놈들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기가 일쑤였던 치욕의 반생-빠져린 뉘우침이 스며들어 치가 떨렸다. (김사량 지음·김재용 편주, 『항일중국망명기-노마만리』, 실천문학사, 2002, 178쪽)

모택동이 『강화』에서 “아직 개조되지 않은 지식인과 노동자·농민을 비교했을 때 지식인은 깨끗하지 않으며 가장 깨끗한 것은 노동자·농민<sup>54)</sup>이라고 했듯이 『노마만리』에서 ‘과거의 나’에 대한 평가는 극히 부정적인 동시에 ‘깨끗하지 않은’ 존재였다. ‘나’는 ‘굴욕의 진창 속에서 더러운 옷깃을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생애를 찾아 들어오게 된’ 인물로서 ‘천하 게으름뱅이요 눈치꾼이요 이기주의자’다. ‘나’는 비판과 개조를 받아 마땅하며 ‘굴욕의 진창 속’에서 ‘나’를 구원해준 자는 의용군, 팔로군 병사들과 간부들, 농민을 포함한 ‘새 사회의 대표들’ 들이었다. 팔로군 정치위원은 ‘나’가 “더러운 옷깃을 떨치고 일어나 이렇게 새로운 생애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음을 축복해주며 따뜻하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며”, 현동무로부터 보았던 조선의용군의 간부는 필요 이상의 말도,

54) 모택동,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꾸어모루어 외/김의진·심혜영·성민엽 옮김, 『문학과 정치-현대중국의 문학이론』, 중앙일보사, 1989, 262쪽.

실없이 웃지도 않았지만 모든 일에 앞장서며 동지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아무런 압박감과 거리감’도 주지 않는 미래의 새 간부의 모습이였다. 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존경과 함께 머리가 수그러짐을 느낀다고 했다.

‘나’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은 또 적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탈출노상에 보았던 중국 민중은 도탄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며 일제의 삼광(燒, 殺, 搶)정책으로 인해 말할 나위 없이 피폐한 모습이였다. 일제에 아들을 빼앗기고 정신이상에 걸린 ‘배장수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조선에 있는 학도병 어머니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며 짓밟힌 고향 땅이 생각나게 한다. 또 의용군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은 아주 상세히 다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동시에 강렬한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감정이 폭발하며 더욱 강력하게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비판하기에 이른다.

자기 비판적 시각에서 다시 본 『노마만리』는 해방기의 단순한 ‘연안’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연안’ 이야기를 통한 김사량 자신의 이야기였다. 해방 후 서울에 나타난 김사량은 근거지에서의 사상 개조와 자기비판을 통해 소부르주아 지식인으로서의 일체 과거와 구분 짓고 부정하면서 ‘신아’ 즉 ‘새 인간’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연안 ‘정풍운동’ 시기 양산되었던 중국 문인들의 자기비판적 서술방식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김사량이 상상했던 미래이자 이상적 사회주의의 상(像)으로서의 ‘연안’과 실제 ‘연안’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1942년부터 시작된 ‘정풍운동’은 김사량의 말처럼 ‘당 내 숙청운동’으로 그 속에는 강력한 배제와 포섭 및 동일화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문예 역시 허용된 ‘자유’의 범위 내에서 당이 정해준 노선을 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문예공작자들을 포함하는 지식인들은 꿈

임없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야만 했다.

나아가 김사량에게 있어 ‘정풍운동’과 『강화』의 영향력은 『노마만리』라는 작품 한 편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우선 해방 후 북한 역시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면서 소련뿐만 아니라 보다 인접해 있는 중국의 공산정권의 정책과 노선도 북한의 건국과 건설에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다.<sup>55)</sup> 특히 1946년 ‘응향사건’ 이후인 1947년에 출판된 단행본 『노마만리』가 북한의 문예통제와 검열을 통과한 텍스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마만리』에서 언급된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이나 ‘정풍운동’에 대한 소개와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연안’ 시기 중국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이 북한에서도 수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준다.<sup>56)</sup>

김사량은 해방 후 북한 문단에서 상당히 활약적인 인물이었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비판 속에서 그는 ‘소시민’적 계급성분에 대한 자아비판을 멈출 수 없었으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작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비판과 고민은 『북조선각도예술연맹 관계자좌담회』(1946.11)에서 한 김사량의 발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는 해방 후 자신의 작품이 비판을 받은 원인은 “아직 내 階級成分인 都市 小市民의 生活을 깨끗이 清算치 못했”기 때문

55) 『신문학』 창간호에 실린 『文藝와 革命工作』(『신문학』 창간호, 新文學同人會, 1946.4, 174-178쪽)은 바로 『강화』를 부분 번역, 게재한 것이며, 중국 측 연구에 의하면 1946년 4, 5월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서 『강화』 학습토론회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작가 한설야, 김사량, 전재경, 최명익, 시인 이찬, 극작가 한태천, 평론가 안함광 등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 【中】 陳晨, 『毛澤東的《講話》在世界各地』, 『廣西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년 제3기, 1999.3, 28쪽.

김사량과 친구였던 고찬보(高贊輔) 역시 연안에서 귀국한 후 『延安의 藝術運動에 對하여』(4회)라는 글에서 ‘정풍운동’과 『강화』와 결부하여 연안의 문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중앙신문』, 1946년 2월 20-22일, 24일)

56) “신민주주의 정책은 공산주의 국가건설 과정에 있던 해방 직후 북조선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단계론적 이론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1947년 혹은 1955년 단계의 『노마만리』 텍스트에 신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록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중요한 비중으로 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광형덕, 앞의 논문,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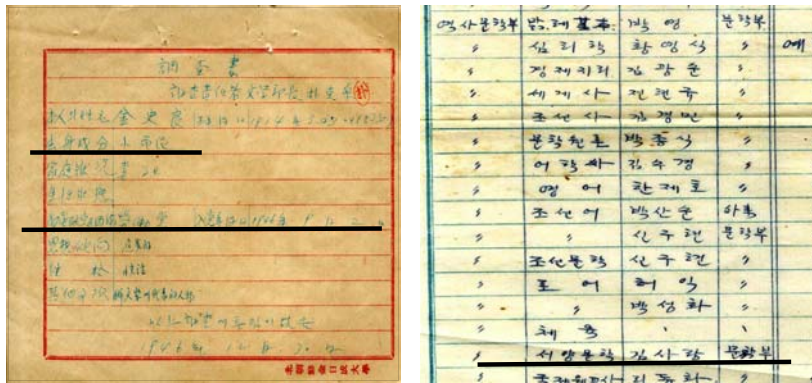
이라고 자기비판을 하며,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內容 새로운 表現 새로운 스타일을 爭取”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중국 항전지구의 작가들을 따라 배워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제안한 바는 바로 “작가들을 현지생활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풍운동 이후 발표된 『강화』는 지식인의 소부르주아적 사상을 개조하고 작가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인민의 예술’을 성취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면 북한에 돌아간 김사량 역시 이러한 주장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있었으며 해방 후 작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참조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sup>57)</sup>

#### 4. 결론

본고는 ‘연안’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방기 양산되는 ‘연안’ 이야기 속에 『노마만리』를 위치시킴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해방기 및 80년대 이후 지식인들의 전유 욕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욕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김사량 자신의 ‘연안’에 대한 상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코 도착하지 못했던 ‘연안’은 김사량에게 항일의 상징이자 도래해야 할 미래상이었으며, 되찾아야 할 고향이기도 했다. 또 지식인들의 욕망에 의해 가려졌던 ‘연안’ 및 정풍운동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여 작품 속 ‘나’의 이야기를 읽어냄으로써 이 작품의 사료적 가치를 뛰어넘어 김사량 및 『노마만리』 텍스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북한에 남은 김사량은 북한 문단에서 여러 직무를 겸임하는 한편 작가로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가장 먼저 김일성을 영웅화하는 희곡작품 『뢰성(雷聲)』(1946.8)을 창작하였으며 북조선 노동

57) 『북조선각도예술연맹 관계자좌담회』, 『문화전선』 2호, 북조선 예술총동맹, 1946. 11, 76-77쪽.



당에 가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서양 문학 강의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이력서’에 남아있는 김사량의 조사서를 본다면 ‘출신성분’란에 적혀있는 ‘소시민’<sup>58)</sup>이라는 세 글자는 유난히 눈에 띈다.

김사량은 『노마만리』 단행본을 통해 과거와 결별한 ‘새로운 자아’로 성장했음을 피력했고, 1946년에 북조선 노동당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소시민’이라는 딱지 표는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방 전 그의 가문이 누렸던 ‘부’는 해방 후 김사량이 북한 체제 속에서 균열과 소외를 일으키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쟁 발발 후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종군작가로 전장에 나가 수 편의 종군기를 쓰는 것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였다. 이때 김사량에게 종군작가의 길은 연안으로의 탈출과 마찬가지로 ‘소시민’이라는 ‘타자’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가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자아증명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상상해본다.

5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Item #31 金大(김일성대학)교원 이력서, 문학부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11 ; Series).

## 참고문헌

### 1. 기본 텍스트

『경향신문』, 『문학』, 『문화통신』, 『문화전선』, 『신문학』, 『자유신문』, 『중앙신문』, 『연합뉴스』, 『조선신보』, 『통일뉴스』, 『한겨레』

### 2. 참고 논저

고인환, 「김사랑의 『노마만리』 연구: 텍스트에 반영된 현실 인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9집, 어문연구학회, 2009, 231-255쪽.

곽형덕, 『김사랑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_\_\_\_\_, 「해방 전후 김사랑문학과 동아시아—『노마만리』 재론」, 『한민족 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2018.6, 43-74쪽.

구재진, 「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 제47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2, 269-294쪽.

김석희, 「김사랑 평가사—‘민족주의’의 레트릭과 김사랑 평가」, 『일어일 문학연구』 제57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4, 1-17쪽.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재용, 『항일중국망명기—노마만리』, 실천문학사, 2002.

\_\_\_\_\_, 「김사랑—망명 혹은 우회적 글쓰기의 돌파구」,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241-260쪽.

\_\_\_\_\_, 「일제 최후기 조선문학과 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6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6, 223-243쪽.

김혜연, 「김사랑과 북한 문학의 정치적 거리」, 『한국학연구』 3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9, 77-100쪽.



- 꾸어모루어 외/김의진·심혜영·성민엽 옮김, 『문학과 정치—현대중국  
의 문학회론』, 중앙일보사, 1989.
- 류희정, 『현대조선문학선집53—1940년대 문학 작품집(해방전 편)』, 문학  
예술출판사, 2011.
- 백원담, 『모택동 『문안문예강화』의 재음미-지식인 혹은 문예주체의 상  
의 정립과 관련하여』, 『중국어문학논집』 제11호, 중국어문학연  
구회, 351-372쪽.
- 송기한·김외곤, 『해방공간의 비평문학1』, 태학사, 1991.
- 신상초, 『탈출』, 녹문각, 1966.
- 신형기,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 삼인, 2015.
- \_\_\_\_\_, 『해방 직후 문학 논의의 쟁점』, 박명림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6  
—쟁점과 과제』, 한길사, 1989. 265-292쪽.
- 안우식 저, 심원섭 역, 『김사량 평전』, 문학과 지성사, 2000.
- 엄영식, 『탈출』, 야스미디어, 2005.
- 엄현숙, 『결핍에 대한 북한 주민의 마음의 변화: 『조선신보』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0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8.11, 265-290  
쪽.
-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유임하, 『김사량의 『노마만리』 재론—서발턴의 탐색에서 제국주의와의  
길항으로』, 『일본학』 제40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5,  
147-175쪽.
- 이상경, 『암흑기를 뚫은 민족해방의 문학—김사량의 삶과 문학』, 김사량  
저·이상경 편, 『노마만리』, 동광출판사, 1989. 399-409쪽.
- 이해영, 『1940년대 연안체험 형상화연구: 『항전별곡』, 『연안행』, 『노마만  
리』를 중심으로』,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장형준, 『작가 김사량과 그의 문학』, 김사량 저·김재남 편, 『종군기』,

살림터, 1992, 317-335쪽.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한아진, 「해방기 이용악의 자기비판과 시적 변모」,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8, 189-243쪽.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 (없는) 정치—루쉰 룽잉쥬ng 김사랑 ‘아’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제6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9. 375-423쪽.

호테이 토시히로, 『초기 북한문단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김사랑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中】 에드가·스노 저, 董樂山 역, 『서행만기』, 해방군문예출판사, 2002.

【中】 陳晨, 「毛澤東的〈講話〉在世界各地」, 『廣西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년 제3기, 1999.3, 28-32쪽.

【中】 崔玉軍, 「抗戰時期到訪延安的美國人及其“延安敘事”」, 『齊魯學刊』, 2017년 제5기, 33-50쪽.

【中】 上海市美國問題研究所課題組, 「Edgar Snow對中國共產黨發展國際關係的貢獻和影響」, 『湖北社會科學』, 2011년 제7기, 42-45쪽.

【中】 吳敏, 『延安文人研究』, 文匯出版社, 2010.

【中】 王建宏, 「朝鮮革命者在延安活動述論(1935-1945)」, 『延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40권 제6기, 2018.12, 64-70쪽.

【日】 大村益夫, 「解放直後ソウル時代の金學鐵」, 『植民地文化研究：資料と分析』(17), 浦安：植民地文化學會, 2018. 56-66쪽.

【日】 鄭百秀, 「『抗日鬪爭文學』というイデオロギ—金史良の中國脱出紀行『鴛馬万里』」, 『櫻美林世界文學』(3), 櫻美林大學世界文學會, 2007.3, 1-17쪽.

<Abstract>

## A Study on Kim Saryang’s Nomamanri from the Perspective of Yan’an

Jin, Xing-Hua\*

Previous researchers incline to classify Kim Saryang’s Nomamanri into the category of “resistant literature” and “Anti-Japanese literature”. This paper intends to study Nomamanri by paying close attention to “Yan’an influence”; tries to explore how Nomamanri is accepted among the Yan’an stories after the liberation of China and attempts to trail the Yan’an influence in this work as the supplement and enrichment to the study of it.

Yan’an, the place of origin of the regim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 introduced to the whole world through the report of an American journalist, Edgar Snow and quickly became the sacred place of the resistance against Japan. After that, in addition to the Chinese intellectuals and people of resolve, many Korean patriots who launched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hina streamed into Yan’an with their anti-Japanese dreams and set up the “Korean Volunteer Army” and their own political organizations to fight side by side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consequence of Japan’s defeat, the Korean Volunteer Army returned to Korea in succession. They associated “Yan’an” with the spirit of resistance against Japan and

---

\*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Foreign Language School, Nantong University, China)

spread it far and wide. In the ethos, Kim Saryang and his Nomamanri were simply regarded as anti-Japanese stories of Korean Volunteer Army. However, with the thorough analysis of Nomamanri, people can discover that the place Yan'an is not only considered the sacred place of resistance against Japan, but is deemed as Utopia of that time and evokes the author's memories of his hometown that was devastated by the Japanese invaders. Yan'an spirit showed a new way for the Koreans who have just broken away from the colonization of Japan and is destined to have great influence on the future and national development of Korea. What's more, it gives the author hope that his hometown could be rebuilt.

Considering that Kim Saryang had escaped from the colonized Korea and fled to Taihang Mountain, one of the resistance bases in China, the study of Nomamanri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Rectification Movement. The Rectification Movement rendered the ideological remoulding and self-criticism as the daily routine and made them the trend of artistic creation in those base areas.

The hero's repeated self-denial and self-criticism of his petty bourgeois class in Nomamanri indicates that it's not only a typical Yan'an story about the Korean Volunteer Army, but also a story in which the author projects himself onto the hero implying his own ideological transformation.

Key Words : Kim Saryang, 『Nomamanri』, Yan'an, Anti-Japanese, Future, Hometown, Petty Bourgeois, Self-criticism

■ 논문접수 : 2020년 3월 9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20년 4월 17일